

[목회자 모임] 낮이 12시다

2019. 4. 12. 이현래 목사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면서 소경된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온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때가 아직 낮이매.”(요9:4)라는 말씀을 했고, 빛이 있을 동안에 일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빛이 있을 동안 일한다는 것이 구약시대에 하던 것은 빛이 어두웠던 때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꼭 달밤 같은 때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 초롱불을 켜놓고 살던 시대에는 그것이 전부였는데, 전기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초롱불이 너무 어둡다고 느꼈다. 도시에 가서 전깃불 밑에 있다가 시골에 가서 초롱불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캄캄할 수 없었다.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를 산다면 당연히 구약시대가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실감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도 아직도 구약시대를 살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바울은 갈라디아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갈3:1)고 했다.

바울이 볼 때는 너무 답답했겠는가? 옛날 것을 다시 주장하고 있으니까 좋은 것이 아니냐? 좋은 것은 하고 안 좋으면 버리면 안 되냐? 이런 말이 되는데 바울이 볼 때는 너무 답답했던 것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갈3:1)고 이야기 했다.

빛이 있던 사람이 어두운 곳을 보면 아주 어둡게 보인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 있던 사람은 어둠을 봐도 모른다. 늘 보던 것이니까 그게 그것같이 보인다. 예수님도 그런 것 같다.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려고저려고 하니까 “뉘 죄로 이렇게 되었냐?”고 하면서 원인을 따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했겠는가? 오늘 우리도 그런 입장이다.

루터나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할 일이 없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보냈으니까 그를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전적 타락설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조금 달리 사람이 거듭나면 성령이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결에 이르고 성화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칼빈의 입장에서는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냥 죄인이라는 것에 집착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법률가니까 법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먹었다는 것이다. 큰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봐준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어디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는 칼빈이 말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했던 것 같다.

그런데 조금 시대가 지났으니까 요한 웨슬레에 와서는 조금 반성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에 관심이 왔던 것 같다. 감리교는 뜨겁다는 것이 있다. 이것이 거듭났다는 것인데 뜨거운 체험이다. 뜨거웠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협력을 해야 일이 되지 협력을 안 하면 아무리 성령이라도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이 말도 맞는 말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도 '아멘'이라도 해야지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팽팽하게 하게 대립되었었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 가보면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른다. 다 물 타듯이 섞어져서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 형편이다.

칼빈주의에서는 내세나 재림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내세니 재림이니 하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불었고 세계사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가 답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성화 쪽에서는 점진적으로 성화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한 셈이다. 그러나 어떻게 어디까지 성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다.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천주교 계통의 병원이었다. 나이가 많은 수녀님들이 몇 분 왔다. 수녀님들과 조금 떨어져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한 마디라도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데, 옆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떠들고 있었다. 그것을 조용히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가 하면 ‘수녀님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다 넘기시고 지금까지 수녀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다. 수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부모님이 천주교 순교자라서 신부는 못되지만 수사가 되겠다고 우리교회에 나오다가 거기에 갔었다. 그냥 놔두었는데 얼마 있지 않고 되 돌아왔다. 왜 되 돌아왔는가? 일일이 간섭하고 조사하고 감독하는 신부가 있는데, 얼마 있다가 부르더니 너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나가라고 해서 퇴출명령을 받고 우리교회로 돌아왔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물론 그 형제의 성격도 있지만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곳의 규율을 따르고 수사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칭찬을 하려고 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일생을 살아오셨느냐고 칭찬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수녀님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아닙니다. 수고한 것 없습니다.’라고 하겠는가? 아니면 속으로 그것을 긍정하고 ‘어렵지요.’ 이렇게 대답하겠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겉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쉬웠다고는 대답하지 않았을 것 같다. 또 그렇게 어렵게 과정을 통과해 온 것이 그분들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분들은 아니라고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그 기회를 타서 ‘그렇게 고생을 안 하셔도 될 것을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이다. ‘나도 신부될 자격도 없고 수사를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겨우 내가 개신교 목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하다 안 되어서 내가 직행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다. ‘내가 주님께 직행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막판에 이것을 발견해서 지금 수녀님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다. 사실이 그렇기도 하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것이 헛된 고생이 아니겠는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칼빈의 인간의 협력이 불필요하다는 말도 생각

해보고, 요한 웨슬레의 협력설도 생각해보았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칼빈의 말이 맞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타락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그런데 거듭났다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희망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다 거듭난 것인가? 또 모두에게 성령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성령이 왔다고 믿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성령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게 된 사람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성경에 “**낮이 열두 시간(열두시)이 아니냐.**”(요11:9)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낮이 열두시가 아니냐고 하셨다. 예수가 있는 곳은 언제든지 열두시라는 뜻이다. 어떻게 예수가 있으면 낮이 열두시인가? 장님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똑같다. 장님에게는 밤낮이 구별되지 않는다. 눈이 밝으면 빛이 보이는데 눈이 어두우면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것도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인가? 빛이 있는데도 못 보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위치가 이탈되면 무엇을 해도 도움이 안 된다.

만일 간첩이 우리나라에 와서 술집에 놀러 다니고 카바레에 놀러 다니다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일하지 않으면 문제 없다. 그런데 그 간첩이 충성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그 피해는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피해가 더 크다. 문제가 그것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열심이 있는 사람이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아예 없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 주일 헌금이나 하고 가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 자기는 참 열심히 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청빈하러 왔던 장로가 내보내는 장로라는 이야기를 한다. 목사 청빈하러 왔던 장로가 마지막에는 내보내는 장로가 된다고 한다. 그것이 다 의미가 있는 말이다.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청빈하러 오지도 않고, 내보내지도 않고, 그냥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것이다.

위치가 이탈되고 한 일은 정말 잘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이다. 교회에서 어려운 것이 그것이다. 일을 너무 안 해도 문제이고, 너무 열심히 해도 문제이다. 여러분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했겠지만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위험한 사람이다. 너무 안하는 사람도 문제가 된다. 너무 안하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는가? 안 된다. 그런데 너무 잘하는 사람이 하면 사고가 난다.

나도 어찌면 그랬는가 모르겠다. 나도 작은 교단에서 나대로는 충실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였다. 그래서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한 번에 눈에 뭐가 찍힌 것이다. 나도 지금도 그것이 뭔지 모른다. 그런데 저놈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한 분 있었다. 지금도 나는 모른다. 그분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다.

나는 그 후에 나와서 거기에 관심도 없이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외국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분도 나 때문에 굉장한 상처를 입었다. 왜냐하면 저항했기 때문이다. 그냥 나가면 될 것인데, 내가 저항했기 때문에 그분 일생에 생전 처음으로 저항을 받아 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는가? 그런데 아직도 나도 그 원인을 모른다.

그리고 그분도 어찌면 그 원인을 모르지 싶다. 그런 사건이 내 일생에 있었다. 내가 그냥 멍청하게 있는 사람이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뭐를 어찌했는지 모르겠고, 무엇이 그분 눈에 그렇게 위험하게 보였는지를 모르겠다. 하기가 그때만 해도 위험한 인물이었다. 지금 이런 말하고 있는 나도 위험한 인물이다.

남들이 고민 안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위험인물이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분 눈에 그렇게 비쳤다. 굉장히 나를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 참 사람 일이 모를 일이다.

좌우간에 위치가 이탈된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위치가 이탈된 직원은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 계장인지 과장인지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친 것은 미치지 않음만 못하다고 한다. 지나치면 오히려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 왜냐하면 조금 천천히 온 놈은 시간만 지나면 간다. 그런데 너무 빨리 온 놈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왔다.

사람은 어차피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된다. 전적으로 도움

이 안 된다. 그것은 칼빈의 말이 맞다. 전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다 잘한다고 하지 일부러 잘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 자기대로는 잘하려고 하는 것이다. 잘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된다. 이런 사람이 참 어렵다. 정말 마음이 착하고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참 어렵다. 아주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위치를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칼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이 없으니까 그 점에 또 세상을 헛갈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뭔가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세상이 시끄럽게 된다. 우리가 전한 말이 정확하지 않으면 세상에 시끄럽게 된다. 비유로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이 분명해야지 이것이 어떤 소리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군나팔인지 후퇴나팔인지 모르면 안 된다. 군대에서 진군할 때 나팔을 불고 진군했다. 앞으로 가라고 부는 나팔인지, 뒤로 후퇴하라고 부는 나팔인지 모르면 큰 혼란이 생긴다.

위치가 이탈된 사람은 이것이 안 된다. 자기는 열심히 불었는데, 후퇴하는 자리에서 전진나팔을 불어 버린다. 그러면 혼란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목회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나도 참 나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뭘 주었는지 모르겠고 뭘 말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은 앞으로 일할 시간이 많으니까 내 이야기가 참고가 될 것이다. 진짜로 뭘 말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도 연락을 한다. 그런데도 그분들에게 할 말이 없다.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시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너무 오래된 분들이고 나를 도와주신 분들인데, 내가 왜 그분들에게 뭔가를 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분들과 한 번에 모인다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참회록을 말하겠다. 내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런데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시니까 지금 낮이 아니냐? 낮에 일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도 일을 하시니까 그렇지, 사람에게만 일을 맡겨놓는다면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와서

밝히 드러났다. 그 외에는 어디에도 밝히 드러나지 않는다. 달밤이다. 달밤에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은 그냥 대강하는 것이다. 대강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행할 수 없다. 가도 가는 것이 아니고 뛰어도 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몇 시간을 걸어본 일이 있다. 6.25 때 피난을 가는데 광주에서 막차를 탔다. 해남 남창에 도착했는데 밤이다. 거기서부터 땅 끝까지 걸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땅 끝을 몰랐다. 열세 살밖에 안 되었으니까 어린 나이였다. 앞에는 다 어른들이다. 이분들이 가는 데로 가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열세 살짜리가 어른들 뒤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보통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도로가 나있지만 길이 없어서 바닷가로 때로는 모래밭으로 때로는 자갈밭으로 때로는 바위로 따라가야 된다. 거기서 떨어지면 길을 모르니까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한 두세 시간 걸었을 것이다. 식은땀이 났지만 그래도 나 혼자 멈출 수 없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들 간다. 그때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 놓았으면 이것은 분명히 귀신들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했을 것이다. 어스름한 달밤에 말없이 그냥 갔다. 그런 경험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스도 없는 밖에서 행했던 일은 그런 일인데 그때로서는 우리는 최선의 길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새벽에 도착했다. 어린나이에 그래도 앞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히 옳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어서 그렇지 잘못된 길로 갔으면 나는 할 수 없다. 길을 모르기 때문이다.

“낮이 열두 시간(열두시)이 아니냐.”(요11:9) 내가 있는 동안은 낮이 열두시가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된다. 이 말이 참 너무 너무 정확한 말이다. 구약에 약속되었던 모든 말은 다 미결이다. 완결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와서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곧 자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그 위치에 와서, 거기서 ‘예’가 된다는 말이다.

그 말은 인격에게 준 말인데 소가 그것을 알아듣겠는가? 소격과 인격은 너무 다르다. 개격과 인격은 너무 다르다. 그런데 그 인격이 없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인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인격이라고 하면 인격이 무엇인데 자꾸 이야기하느냐고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든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격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래 있는 것이지 인격을 만들 수가 없다. 어떻게 인격을 만들겠는가?

소나무를 잣나무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잣나무를 소나무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 격이라는 글자가 아주 중요한 글자이다.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번역할 수 없다고 한다. 영어로 번역이 잘 안된다고 한다. 격(格)이라는 글자가 나무 목(木)자 옆에 각 각(各)이라는 자다. 나무는 자기 자리 밖에는 없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 격이라는 것이다. 격이 맞는다는 말은 아주 요지부동이라는 뜻이다.

전압이 몇 볼트냐고 하면 정격이다. 전기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방해거리다. 벼락치고 천둥치는 것이 전기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이 다 벼락이다. 사람이 만들어 낸 벼락이다.

사람은 격이 정해져야 된다. 그 격을 정할 자리가 어디겠는가? 무중력 상태로 가는 것이겠는가? 해탈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 인간의 격이겠는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가 인간의 격이겠는가? 너무나 명백하다.

불교가 가는 길은 그 어디에도 제한되지 않고 완전 자유자재하는 그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것을 해탈이라고도 하고 반야의 세계라고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격이겠는가? 혹시 그렇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서는 위대하다 할 것이다. 나도 옛날에는 그것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정말 위험한 것이다. 하늘에 돌아다니는 전기와 똑 같은 것이다. 어디다 붙을지 모르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 없는 성인들이나 가능한 일이지 아무나 그렇게 할 일이 못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땡중이 된 사람들은 사고를 많이 친다. 정확하게 자기들이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겉발림으로 무엇을 좀 배워서 자유, 해탈, 이런 것만 아는 사람들은 사고 친다. 자기는 해탈이 안 되었으면서, 해탈을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사고가 안 나겠는가?

사람은 제한 속에 있는 존재이다.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조물인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매력이다. 요즘 사람들은 구속받기 싫어한다. 제한 받기 싫어한다. 아이들도 그런 것을 싫어한다.

요즘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제발 그만 두세요.'라고 한다. 뭘 좀 도와주겠다고 하면 도와주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한다. 필요하면 내가 요청할 테니까 그때나 도와주고 미리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다. 미리 도와주면 자기가 제한된다. 그것을 싫어한다.

이것은 미국 사상인데 미국 아이들이 그렇다. 어려서 그렇게 키운다. 그래서 18세인가 성년이 된 후에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너는 아직도 집에 붙어 있느냐고 한다. 사람이 컸으면 독립해야 하다는 말이다. 컸으면 독립해야지 아직도 집에 붙어 있느냐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이다. 공연히 제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독립심이다.

누가 미국 사람들을 설득하겠는가? 우리 정부의 훌륭한 분들이 미국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는데 단단히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꾸 일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 단방에 혼내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느슨하게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못 마땅하겠는가? 그것을 알고 있다. 언젠가는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된다. 똑 같은 마음을 가져도 안 되는데, 마음이 조금 다르면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일만 저지른다.

우리도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낮 열두 시에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저지르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선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막연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수 안에, 절대적인 제한 안에, 사람을 모으는 것이다. 그 한 자리로 모든 것을 모으는 것이다.

영상을 보고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그런 위치다. 그 위치가 너무 존귀한 위치인데, 그것을 마다하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인류가 가는 길을 보라. 바로 그때 그것이 나온 것이다. 아담에게서 표현되지 않았던 것이 표

현되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가인과 아벨은 참 좋은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왜 저런 모양인가?’ 그렇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도 저것 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방해한 것이다. 계획하는 것마다 방해하는 것이다.

“낮이 열두 시간(열두시)이 아니냐.”(요11:9)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낮 열두 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이다. 거기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과연 인간이 해탈할 수 있는가? 거기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과연 인간이 해탈할 수 있는가? 생각으로는 된다. 그러나 현실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현실이다. 생각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한다.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좀 어려운 말이다. 처음 교회에 부임해 가니까 집사님들이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데 부담이 되었다. 위대한 종이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되라는 말인데 저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이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위대한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었다.

종이라는 것은 귀가 뚫린 사람이 아닌가? 문설주에 못을 박아서 귀를 뚫은 사람이 종이다. 다시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맹세하느라고 주인이 데려다가 귀를 뚫는다고 한다. ‘이제 자유 하겠느냐? 종이 되겠느냐?’하고 물으면 ‘나는 이 집에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귀를 뚫는다고 되어 있다. 우리가 종이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어려운 일이냐, 어렵지 않은 일이냐가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고생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고생이 아니다. 그것밖에 내게 길이 없으면 고생이 아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고생한다는 말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말이다. 여유가 없으면 고생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것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의 길은 진실한 인간으로 살 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길이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무 것도 없다.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이것이 참 비밀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격을 정해 놓을 때 그냥 정해 놓았겠는가? 그 격에 맞는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다. 격에 맞는 것으로 말이다. 그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의 소산물을 열거하는 것을 보면 온갖 과일이 다 열거되고 있다. 우리는 이름도 못 들었던 과일들이다. 그것은 풍요롭다는 것을 말한다. 정해 놓은 땅은 이렇게 풍요롭다는 말이다.

우리 인격에 정해 놓은 풍요와 영광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격을 정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된다.

옛날에는 예수님에게 감사할 줄 몰랐다. 뭘 해 주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다. 사랑해주었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받은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준 것은 알겠지만 예수님에게 내가 사랑받은 일은 없었다. 인격적으로는 무관한 관계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만일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아무리 해도 해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할 사람이고, 해도 안 되는 일로 많은 사람을 어둠으로 몰아칠 사람이었다. 내가 만일 능력이 더 있어서 10만 명을 모으는 목사였더라면 10만 명을 다 같은 곳으로 몰아넣었을 것이다.

바다에 가면 정치망이라는 것이 있다. 바다에다 그물을 쳐 놓는다. 그런 후 밤에 배에 집어등을 설치해서 가면 그 불을 보고 멸치 떼들이 모여든다. 그 배는 그냥 정치망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던 멸치가 모두 정치망 속에 갇히는 것이다. 그래서 멸치를 잡는다.

내가 10만 명을 모을 사람 같으면 10만 명을 거기다 몰아넣는 것이고, 100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으면 거기다 100만 명을 몰아넣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난 뒤에 불을 끄고 유유히 나온다. 그리고 또 다른 멸치를 잡으러 간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있어야 밝아진다.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선 코스를 보여주신 것이다. 오직 한 길만 보여주신 것이다. 성경 안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길이 아니다. 길은 오직 하나 뿐이다. 예수께로 오는 길! 길은 하나밖에 없다.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은 예수께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니까 너무 간단하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날 수녀님들께 못 하고 왔다. 아주 아쉽다. 여러분은 기회가 있으면 한 번 해 보기를 바란다. 꼭 수녀님들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다. 헛되게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수고를 멈추게 하고,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